

# 호남경선 앞두고...추석 호남민심 잡기 올인

민주 경선주자들 광주·전남 총출동 이재명, 오늘 광주서 지지 호소 이낙연 "반전 드라마 써달라" 추미애, 호남 발전 공약 발표 박용진·김두관 간담회 등 일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뜨거워지고 있다. 각 경선 후보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5일 광주·전남·전북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올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광주에서 '호남 선언'을 발표한 뒤 18일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19일은 전북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의 열린 캠프 소속 의원단 50여명도 광주에 총집결해 추석 연휴기간 광주와 전남·전북으로 나눠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호남 선언'을 통해 민주화 세력의 중심, 민주당의 정신적 기반인 호남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함평과 장성을 돌며 바다 민심을 잡을 계획이며, 19일에는 청년의날을 맞아 청년들과 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서 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나주축협하나로 마트 등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추석 장보기에 나서는 지역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정치적 기반인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 지사의 '대세론'을 꺾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부터 총력전에 들어갔다. 16일 일찌감치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별안간 후보 대선 안심되는 후보를 내놔야 한다"면서 "후보의 확장성으로 대결해야 한다"고 말



광주와 전남 지역 체육인들이 16일 광주시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낡아빠진 고정관념을 단호하게 거부해달라"면서 "이번 대선은 1% 싸움인 만큼 무당층과 중도층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후보가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면서 이 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 전남·북이 전폭적 지지를 해준다면 부·울·경에서도 큰 지지를 받아 오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을 이어가는, 광주가 지지하고 사랑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의원직 사퇴) 진정성을 받아달라. 광주가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제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고 호소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광주를 찾아 현재 경선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와 날을 세우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 없는) '물뺑'을 주장하는데, 기고만장하다"면서 "남은 경선에서 비전을 알리고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 결선 없이 가자는 것은 경선 공포증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개혁인데, 개혁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던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안된다"면서 "네거티브와 무책임의 대명사가 민주당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을 국가 균형 발전 4.0 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어내겠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개헌 추진, 헌법재판소 광주 유치, 호남형 메가시티 구축 등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박용진 의원은 2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호남을 공략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군산부터 전주, 장수, 고창, 광주, 목포, 보성, 나주 등을 돌며 호남 민심 다지기엔 나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 심장이 호남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호남에서 귀성 인사, 코로나 의료진 격려,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김두관 후보는 18일 전남 동부권인 여수와 순천을 돌며, 지방의원들과 당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현장캠프 의원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28%·윤석열 20%·홍준표 14%

후보 적합도 호남에선 이재명 37.75%·이낙연 21.42%

### 4개기관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을 맹추격 중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도 올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같은 조사에서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모두에서 타 후보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8%, 윤 전 총장은 20%로 각각 집계됐다. 두 후보자 모두 1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3%포인트씩 오른 수치다. 홍 의원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1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 중인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11%를 얻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2%를 받으며 뒤를 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5%, 윤 전 총장이 37%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홍 의원의 대결에서는 44% 대 38%로 역시 앞섰다. 이 지사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홍 의원은 전주보다 6%포인트 급등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윤 전 총장과 가상대결

에서는 40%를 기록해 윤 전 총장(37%)에 우위였으나 홍 의원에게는 42% 대 38%로 뒤졌다. 홍 의원은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29%를 기록, 전주에 이어 윤 전 총장(24%)을 계속 앞서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4%를 받으며 확고한 선두주자 흐름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19%를 받았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로 뒤를 이었다.

후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당선 가능성)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이 지사를 택했고, 윤 전 총장(22%)과 홍 의원(12%), 이 전 대표(6%)가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조사 결과만 따로 놓고 보면,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지사는 호남권에서 51.02%를 얻었고 이 전 대표는 14.29%를 받아 40%에 육박하는 격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홍 의원(11.22%), 윤 전 총장(3.06%)이 뒤따랐다.

대선주자 적합도의 경우 호남권에서 이 지사는 37.75%, 이 전 대표는 21.42%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홍 의원 8.16%, 윤 전 총장 7.14%를 기록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체육계·노동계·정치권...각계 이재명·이낙연 지지선언 봇물

오는 25~26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각계의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체육인들은 16일 오전 광주시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체육정 설치, 지방 체육 재정 안정화, 스포츠 기본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체육의 근간인 지방 체육을 굳건히 세울 후보는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강조했다. 지지 선언에는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 장경수 전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신석섭 대한장애인체육발전포럼 광주시 대표, 조선대 유오남·정홍용 교수 등 지역 전문·생활·장애

인 체육인 4000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광주버스노동조합도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지지하는 선언했다. 이에 앞서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등 지역 교육계 인사 222명도 이날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 등을 통해 "충청권 압승으로 대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미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인 공정국가와 대동 세상을 건설하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임이 확실해진 만큼 이재명 후보 지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선언도 잇따랐다. "민주당 승리를 염원하는 호남 10만인"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고 있다"며 "도덕적 흠결이 없는 후보, 모든 공직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성과를 냈던 후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후보 이낙연에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지에 동참한 10만명은 개별적인 전화를 통해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전북도의회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전북 14개 시군지부 및 기술인 가족 1만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이 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광주에서는 호남인 1000명 지지선언과 출향 호남인들의 모임인 '호남지기'의 발대식과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 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조건부)
- MG NEW 정기적금 1년 **2.6%** (조건부)
- MG 더뱅킹 정기에금 1년 **2.1%**

**우대조건**

- MG 스마트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
- 만기자동이체 등록
-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거래 실적 6회 이상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드밴스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돌고개역 지점

농성빛어울림 아파트  
양동초등학교  
월산동 명품반도유보아 아파트

광주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